

사이드 브레이크 제대로 활용하기



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사로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브레이크의 경우 유압으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잡아서 차를 세우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는

오토매틱 기어가 대부분인 요즘 사이드 브레이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어떤 기능을 하며,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평지 주차에도 채우기

사이드 브레이크는 손잡이가 운전석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 '사이드 브레이크 (Side break)' 라 부르며, 주로 주차 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 브레이크' 라고도 부른다. 레버식과 페달식이 대중화 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전자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오토매틱 자동차의 경우 주차 시 P(파킹) 기어에만 놓아도 차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지에 주차하더라도 가끔적이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놓는 것이 올바른 주차 습관이다.

■ 경사로에 주차 땐 P만으로 부족

자동차 기어의 P상태는 기어를 작은 걸쇠로 걸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걸쇠는 각도가 높은 경사도에서 차량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크기가 매우 작다. 아무리 작은 소형 차라도 1000kg 가량이기 때문에 가파른 경사로에 차를 세웠을 때에는 기어를 고정하는 걸쇠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이 걸쇠가 부러질 경우 차가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

케이בל을 당겨 라이닝을 이용해 뒷바퀴의 브레이크 드럼이나 축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경사로에 주차를 하더라도 타이어 마찰력이 버티는 한 바퀴가 구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이럴 땐 사용 주의

안전한 주차를 위해 필수인 사이드 브레이크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加州 대부분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기도 한다. 만약 영하로 내려가는 산간 등을 방문할 때에는 주차 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영하의 온도에서 장시간 야외 주차 시, 수분에 의해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이 얼어붙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운 날씨에는 기어를 P(파킹)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 대신 차량이 밀릴 것을 대비해 바퀴 밑에 고임목 혹은 벽돌 등을 고여 놓을 고여 놓는다. 고임목이 없을 경우, 차량 방향이 내리막을 향할 경우 핸들을 보도블록 쪽으로, 오르막을 향할 경우 보도블록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틀어 놓으면 차량 전, 후방 범퍼가 보도블록과 충돌해 차량이 경사로 아래로 굴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에 관한 모든 것

자동차는 구석구석 관리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주요 부품들의 관리 방법이나 교체 주기를 알아주는 것이 좋다. 특히 브레이크 패드는 사고 발생 시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인 만큼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현대해상' (blog.hi.co.kr/2799)이 브레이크 패드에 대해 설명했다.



■ 브레이크 패드란?

브레이크 패드는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부품의 한 종류이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오일이 브레이크 패드에 압력을 전달하고, 그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가 브레이크 디스크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제동을 한다. 그런데 브레이크 패드가 점점 얇아지면 마찰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심한 경우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브레이크 패드 교체 주기



브레이크 패드는 디스크와 직접 닿는 면인 '마찰재'와 겹면인 '플레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브레이크 패드의 플레이트와 마찰재의 크기가 비슷하거나, 마찰재가 3mm 미만으로 얇아졌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

■ 브레이크 패드 이상 신호

브레이크 교체 주기가 다가오지 않았더라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반드시 브

레이크 패드를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브레이크의 이상 신호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깹깹' 하는 소음이 발생하거나, 브레이크를 세게 꼭 밟을 때만 제동하는 경우, 밟을 때 푹푹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경우, 계기판 브레이크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경우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해야 한다.

■ 브레이크 패드 자가 점검 방법

브레이크 패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운전자가 스스로 점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자가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볼펜'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 ① 먼저 머리 부분을 눌러 사용하는 방식의 볼펜을 준비하기
- ② 자동차 휠 안쪽에서 브레이크 패드의 위치를 확인하기
- ③ 볼펜의 머리 부분으로 브레이크 패드의 홈을 꼭 눌러보기
- ④ 볼펜 머리 부분이 눌리는 '딸깍'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브레이크 패드가 더 얇아진 것!
 - '딸깍' 하는 소리가 난다 →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새 것
 -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다 → 브레이크 패드 교체 필요

브레이크 패드는 자동차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품이므로 점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5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4년 현재 174.7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0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4276029
T.714.872.9377